

『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21권 1호(2015년 6월) 201-207

제임스 조이스 독회: 『영웅 스티븐』, 『망명자들』

강 서 정

〈일러두기〉

- * <발제>는 독회진행자가 보내온 자료에 근거하고, <토론 내용>은 독회에 참석한 회원이 독회 중 개진한 견해를 독회 후에 정리한 것이다.
- * <토론 내용>에서 발화자의 이름을 생략한다.

제126회 독회

〈모임〉

일시: 2015년 1월 23일(금) 오후 2시

장소: 세종대학교 집현관 804호

범위: [Stephen Hero] chs. 15-18 [발제: 길혜령 선생님]

참석: 강서정, 김상욱, 길혜령, 남기현, 손승희, 이영심, 이종일, 전은경 (가나다 순)

〈발제내용〉

Differences from *A Portrait*

- far more direct and detailed, through an open door instead of a keyhole (Stephen's intimacy with his brother Maurice; about Madden, McCann, Cranly, Lynch and Emma; the death of his sister Isabel; Ibsen; mother and Easter duty)
- Stephen as hero is an adolescent; Stephen as artist is an adult
- his aesthetic theory fully outlined, contrasted with the conventionality of Catholicism
- theory of epiphanies in the manuscript alone, left out of the *Portrait*

〈토론내용〉

- 우리나라 식민지 교육과 아일랜드 교육 비교(대개는 직업 교육)
- 엘리엇과 조이스의 비교(엘리엇이 보다 보수적/ 영국 선호)
- 질서 부여에 대한 생각
- 조이스와 스티븐(어머니의 죽음과 유럽행/ 성장)
- 젊을 때에는 보다 관념적/ 나이가 들에 따라 보다 현실적이 된다.
- 스티븐은 계속 걷는다. 마치 고대 소요학과처럼
- 사람들은 입센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경향을 보인다.
- 기네스 맥주/ 베이킹 소다 파우더는 일종의 소화제("It's good for you.")

제127회 독회

〈모임〉

일시: 2015년 2월 27일(금) 오후 2시

장소: 세종대학교 집현관 804호

범위: [Stephen Hero] chs. 19-20 [발제: 강서정 선생님]

참석: 강서정, 김광택, 김길중, 손승희, 이영규, 이영심, 이종일, 전은경

〈발제내용〉

스티븐의 예술관

- 종교나 국적, 언어에 매이지 않는 자유스런 예술의 추구
- 예술은 **심미적 목적**을 위한 인간적 **성향**
- 서정적/ 서사적/ 극적
- 예술가는 그의 경험의 세계와 꿈의 세계 사이의 중재자/ **선택적 능력**과 **재현적 능력**을 부여받은 중재자
- 즉, “가장 **정확하게 규정된 환경**의 그물로부터 미묘한 **영혼의 심상**을 떼어 놓을 수 있고, 그의 **새로운 직무** 속에서 그것을 위해 **가장 정확한 것으로 선택된** 예술적 환경 속에 그것을 **재유형화**할 수 있는 예술가야말로 최상의 예술가”
- 이는 규제에서 벗어난 무조건적 혼란과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정신적으로는 고양되어 있고, 또 규제에서의 초월을 꿈꾸지만
- 그것을 “선택된 예술적 환경 속에” “재유형화”하는 과정은
- 고전주의에서 강조하는 “안전과 만족, 인내의 기질”을 드러내는 것.
- 이러한 낭만주의와 고전주의의 결합은 도덕적인 선을 위해 기능하는 것이 아닌, 심미적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스티븐은 믿는 것 같다.
- 그 과정에서 아퀴나스의 미학 이론을 끌어와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한다.
- 그러나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칭찬하는 입센의 글을 읽어본 적도 없이 그것이 비도덕적이라고 매도하고, 문학은 도덕적 교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 이들은 애국심, 혹은 그들의 신앙에 기반 하여 스티븐의 문학관을 오독하고 공격하며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다.

“고전적 문체는 예술의 삼단논법이요,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의 유일한 합법적 과정이다. 고전주의는 어떤 고정된 시대 혹은 어떤 고정된 나라의 방식이 아니다. 즉 그것은 예술적 마음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것은 안전과 만족 그리고 인내의

기질이다. [...] 고전적 기질은 언제나 제한을 명심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현재의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기를 택한다. 그리하여 그들을 작동하게 하고 그들을 유형화하고 그로 인해 재빠른 지성은 아직 언급되지 않은 그들의 의미를 초월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건전하고 기쁜 정신은 나타나고 불멸의 완전함을 성취하는지라, 천성은 그의 선의와 감사로서 도움을 받는다.”

“스티븐은 예술의 목적은 교화시키고, 고양시키고, 그리하여 즐기는 것이라는 고전적 원칙을 수립했다.”

“예술은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에요. ... 예술은 삶의 바로 중심적 표현이죠. ... 예술가는 자기 자신의 삶의 충만을 확인하고 또한 창조해요.”

“그것은 모두 기질의 문제입니다. 그가 시인이든 비평가이든 사회를 향한 한 사람의 태도 말입니다.”

“미를 위해서는 3가지가 요구되지요. 전체성, 조화, 광휘. 저에게는 위험 대신에 그 이론 속에 찬연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지적인 천성은 그것을 즉시 이해할 수 있지요.”

“저는 어떤 분명한 뜻으로, 어떤 확고한 한정된 의미를 가지고 ‘고전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뜻하는 ‘고전적’이란 만족스런 예술이 지닌 느리고 공들인 인내를 의미합니다. 영웅적인 것, 전설적인 것을, 저는 ‘낭만적’이라 부릅니다.”

〈토론내용〉

- 입센은 부르조아의 안락한 삶의 방식에 반대
- 노르웨이에는 집집마다 정원에 인형의 집이 있다.
- 입센은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을 보여준다.
- 스티븐은 모더니즘의 개인의 소외를 보여줌/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와의 대립/ 모던적 개인의 정형성을 희화화, 패러디
- 이 작품을 전기로 여겨선 안 된다.
- 자의식 가득한 천재 스티븐
- 아버지-아들: 기존의 권위, 고정된 가치관을 대변하는 아버지에게 벗어나려 함
- 어머니는 교회를 대변/ 순종 강요/ 종교의 허위 의식

-아일랜드는 늙은 여성?

-<피네건의 경야>에서는 노파로 시작/ <율리시스>에서도 우유 파는 노파가 등장

제128회 독회

<모임>

일시: 2015년 3월 21일(토) 오후 2시

장소: 세종대학교 집현관 804호

범위: [Stephen Hero] chs. 21-23 [발제: 이영규 선생님]

참석: 강서정, 고영희, 김광택, 김철수, 남기현, 손승희, 이영규, 이영심, 이종일

<발제내용>

1. 크랜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2. 21장에서 스티븐은 자신의 어머니와 부활절 예배를 두고 설전을 벌인다. 스티븐이 느끼는 짜증스러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3. 스티븐의 인생관은 조이스의 작품 성향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4. 스티븐의 어머니, 몸이 아픈 동생 이사벨, 스티븐이 좋아하는 엠마와 같은 여성 캐릭터들은 스티븐에게 어떤 존재들인가?
5. 23장 초반부는 이사벨의 죽음과 장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동생에게 느끼는 미안함은 어떤 의미일까?
6. 23장의 장례식과 『율리시스』의 『하데스』를 비교할 수 있을까?

<토론내용>

- 여성은 작가로서의 예술적 영감의 한 근원
- 조이스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의 비중은?
- 가톨릭 교육의 영향

- 남성이 여성을 대상화하듯 크랜리를 대상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성애적?
- 크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 카테키즘적 사고와 복합적인 사고는 충돌을 일으킨다.
- 바울(바오로)는 교리를 세움으로써 교회를 시작한 사람/ “독신이 낫다”
- 조이스와 아퀴나스: 미학과 관련
- 기독교 논쟁거리 언급/ 조이스 자체가 가톨릭적: 오랫동안 가톨릭 교육을 받았기 때문/ 이성적으로 의심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 스티븐의 엠마에 대한 감정은 어떤 것일까?

제129회 독회

〈모임〉

일시: 2015년 4월 18일(토) 오후 2시

장소: 세종대학교 집현관 804호

범위: [Stephen Hero] chs. 24-26 [발제: 고영희 선생님]

참석: 강서정, 고영희, 김광택, 김소연, 김철수, 남기현, 이영규, 이영심, 이종일

〈발제내용〉

1. How does Joyce portray Stephen as a both a heroic and immature figure at the same time?
2. What is Stephen's ideas about and attitude toward women?
3. How can we evaluate the aesthetics of *A Portrait*?
4. There are metaphors of selling and buying in the last chapters of Stephen Hero. When Father Butt suggests a part-time job to defray Stephen's educational expenses, for example, he asks to Morris, "Don't you think they are trying to buy me?" (228). How much do you agree with the statement and its implication of simony?

5. Concepts such as “vivisection” (186) and a “stationary march” (187)?

〈토론내용〉

- 가톨릭에 대한 태도는?
- 스티븐에 대한 작가의 거리두기
- 스티븐은 여자에 대해 이성적으로 접근할 뿐 실제 잘 알지 못한다.
- 엠마는 스티븐을 좋아했을까?
- 전통에 대한 맹신에 반항
- 생체 해부는 고통을 수반한다. 하지만 해부를 통해 따져보아야 하지 않는가?
- 기존의 것들을 반성하고 자신 만의 방식으로 수용한다.
- 스티븐이 엠마에게 한 제안은 형이상학과 시인의 시를 상기시킨다.
- 노라는 조이스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 여성에 대한 관계에서도 조이스가 이상에서 현실을 추구함을 알 수 있다.
- 조이스는 이상화된 사랑을 그리지 않는다. 『애러비』에서는 소년의 환상으로 끝이 났고, 사랑은 유희의 대상일 수도 있다.
- “집짓는 사람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전에 있었던 사상이나 문예 흐름을 바탕으로 즉, 고전주의를 다시 재해석, 활용.